



# 주간 통일정세

2012-5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일 1주기 앞두고 첫 추모모임(12/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맞아 노동계급과 조선직업총동맹(직맹) 구성원들의 맹세모임이 11일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 동상 앞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리영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현상주 직맹 위원장 등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을 추모하며 묵상했고 김 주석과 김 위원장 동상 앞에 헌화함.
  - 이어 현상주 위원장이 김 위원장 유혼을 지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문을 선창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15만명 동원 '위성 발사' 경축 군중대회(12/14, 조선중앙TV)**
  - 북한은 위성 발사에 성공한 지 사흘째 되는 14일 평양에서 이를 경축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이 이날 보도함.
  - TV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軍民)경축대회'를 생중계하면서, 15만여 명의 평양 시민이 김일성광장과 대동강 건너의 주체사상탑광장에 운집했다고 전함.
  - 문경덕 노동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경축대회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도춘 당 군수담당 비서,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과거 군수공업부)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으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행사에 불참했으며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모습은 주석단에 보이지 않음.
  - 김기남 당 선전담당 비서는 경축보고를 통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운반로켓 은하 3호로 명실공히 선군 조선의 것인 과학기술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며 장군님(김정일)의 유혼 중의 유혼을 관철한 민족사적 대경사"라고 말함.



- **北김정은, '장거리 로켓' 발사 직접 지휘(2보)(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2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 12일 오전 8시 '은하 3호' 발사와 관련해 '최종 친필명령'을 로켓 발사를 담당하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하달하고 발사를 1시간 정도 앞둔 오전 9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음. 김 제1위원장은 발사 준비 과정을 점검한 후 발사 명령을 내렸고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참관함.
  - 김 제1위원장은 "'광명성 3호' 2호기는 철두철미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개발 제작된 주체의 위성"이라며 "인공지구위성을 극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킴으로써 우주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가 세계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에 당당히 올라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함.
  
- **北김정은 "위성발사는 종합적 국력의 일대 과시"(1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안에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장을 직접 찾아 이번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이른 새벽에'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했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음.
  - 통신은 "헌신과 노고를 다 바치고도 그 성과를 자기들(과학자·기술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불렀다'고 현장 분위기를 묘사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평양 근처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종합지휘소'에 들러 로켓 발사과정을 담은 녹화자료를 다시 봤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일 1주기 중앙추모대회 실황 중계(종합)(12/16, 조선중앙TV 등)**
  - 북한이 16일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보도함.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8분까지 약 70분간 진행된 추모대회를 일제히 실황 중계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희 노동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했지만 별도로 연설하지는 않음.
  - 김영남 위원장은 김기남 당 비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의 추모사를 통해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민족사적 공적을 이룩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는 곧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라며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은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



일편단심 김정은 원수님을 순결한 양심과 도덕 의리로 받들어 모시고 건결히 옹호보위하며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 김정은동향

- 12/11,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 원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윤민' 등에게 감사 전달(12.11, 중방)
- 12/13,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에 제설 트랙터 전달(12.13, 중방)
- 12/14, 김정은 黨 제1비서, 12.12 8시 '로켓발사 친필명령 하달' 및 9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하여 발사과정 참관(12.14, 중통·중방)
  - "과학기술이 도달한 높이를 만방에 과시한 자랑스러운 쾌승"이라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 12/15,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광명성-3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들 축하 및 기념사진 촬영(12.15, 중통·중방)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 강조

####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숙(김정일 생모) 생일(12.24) 즈음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12.12 김기남(黨 비서) 등 참가下 빙상관에서 진행(12.12, 중통·평방)
- 최영림(내각총리), 평양곡산공장·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평양금속건재공장·평양무궤도전차공장·류원신발공장 현지 요해(12.13, 중통)

### 나. 군사

#### ● 北 "위성발사 성공...김정일 유훈 관철" 발표(종합2보)(12/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 북한은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해 "인공지구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을 통해 보도함.
-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보도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로켓 발사 사실을 처음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52분 보도를 통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켓 '은하 3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은하 3호'가 이날 오전 9시49분46초에 발사된 뒤 9분27초 만인 9시59분13초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함.
  -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는 97.4도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9.7km, 원지점 고도 584.18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5분29초이며, 이 위성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함.
  - 통신은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획기적 사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은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 넘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버지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아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했다"고 덧붙임.
- **北노동신문 "우주진출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12/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우주진출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주개척이 시대의 추세로 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올해에만도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외국의 우주개발계획과 성공사례를 소개함.
  - 신문은 올해 초 러시아가 쏘아 올린 우주회물선 '프로그레스'호가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성공했다고 전하며 "프로그레스호는 지구궤도를 도는 우주정류소에 먹는 물과 연료, 음식 그리고 과학장비를 전달하는 사명을 지닌 우주기구"라고 소개함.
  - 또한, "(중국의) 16번째 위성은 서창(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 3호'(長征 3C) 운반로켓에 실려 발사됐다"며 "이 위성은 지구정지위성으로 이전에 발사된 15개의 북두(베이더우) 항법위성들과 망을 형성하고 가동함으로써 구역봉사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임.
- **北 "로켓궤적 변경하는 고도의 유도법 적용"(12/14, 노동신문)**
- 북한은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 고도의 위성 관제 기술을 적용, 로켓 궤적을 중간에 변경했다며 "우주강국이라고 일컫는 나라 중 처음부터 이런 높은 기술로 시작한 나라는 없다"고 14일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조선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은하 3호' 로켓에 탑재된) '광명성 3호' 2호기는 위성 역사에 드문 두 개의 고개를 넘었다"며 눈이 쌓인 겨울이라는 기상조건에서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것과 날아가는 로켓의 궤도를 중간에 변경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을 거론함.



- 신문은 이달 초 눈이 많이 내린 점을 언급하며 "위성 발사 역사는 겨울철에 위성을 쏘아 올려 성공한 빈도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기록해왔다"며 "우리 위성이 강설을 박차고 오른 것만 봐도 그 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함.
  - 특히 로켓의 실제 궤적에 대해 "운반 로켓의 2계단(2단)을 국제해상통로와 주민 지대에 떨어지지 않고 공해에 떨어기 위해 자리길(궤적)을 꺾어야 했던 사연...위성 밑에 있는 나라들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우정 굴곡을 만들어 선화시킨 자리길"이라며 "위성 관제의 고도의 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위성, 지상에서 통제 안 되는 상태(12/1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2일 쏘아 올린 위성이 현재 지상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태라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한 관리가 일본 NHK방송을 통해 14일 밝힘.
  - 이 관리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어느 모로 보나 북한의 물체는 지상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며 "그 물체와 지상의 관제센터가 정보를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함.
  - 이 관리는 '위성'(satellite) 대신 '물체'(o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행이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궤도를 벗어날 위험은 아직 없다. 이 물체를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 기타 (군사)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운반로켓 은하-3을 12.12 9시49분46초에 발사, 9시59분13초에 궤도진입' 등 '광명성-3호' 발사 및 궤도진입 상세한 설명과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것"이라고 강조(12.12, 중통·중방)
  - "민족의 위력을 과시하는 자랑스런 계기"라고 自祝 및 "국제법에 부합되는 정당당한 조치"라고 주장(12.12, 평방/우리 민족의 국력을 과시한 역사적 사변)
  - '광명성-3'호 발사 성공으로 평양시 등 전역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며 강철(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리현실(조선과학기술총연맹 부원) 등 각계층 주민들 반향(12.12, 중통·중·평방)
  - '강성국가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사변, 과학기술 위력 시위'라고 박정민 등 평양시민들 반향(12.12, 중통/조선이 위성발사소식을 보도, 시민들의 감격 고조)
-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관련 동정】
  -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발사에 성공한 조선의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방송'(12.13, 평방)
  -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역사적 사변'(12.13, 평방), '위대한 장군님 우리 앞날을 축복하신다'(12.13, 중방), '위성도 우주에 조선의 존엄도 우주에'(12.13, 중방)
  - 국가과학기술위 국장 장룡혁, 직총중앙위원장 현상주, 교육위 부상 오민, 평양시인민위 국장 현광영 등과 각계층 인민들 반향 보도(12.13, 중방·평방)

#### 다. 사회·문화

- 北, 자전거 이용 장려...평양에 자전거전용도로(12/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만드는 등 주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양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차도와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정해졌고, '자전거도로들을 새로 내왔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북한)에서 운동과 교통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있다"며 "평양시의 도로들에 자전거도로들이 따로 정해졌다"고 밝힘.
  - 또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 노선이 있는 곳에서 많은 경우 걸음길(인도)을, 그렇지 않은 데서는 차도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했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흰색으로 표식선들을 쳐주는 사업이 짧은 기간에 끝났다"고 전함.
- 北 "보기 드문 추위...전지역에 20~38cm 눈"(12/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지역에 지난 4일부터 예년에는 좀체 볼 수 없었던 추위가 지속되



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중앙기상예보연구소 리철수 부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중위도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워지기 시작한다"며 "그러나 대륙 고기압이 북위 60~80도 부근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합류하면서 최근 맵쌀(매서운) 추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 **北 인터넷은 엄격통제 '모기장 네트워크'(12/10, BBC)**

- "북한의 인터넷은 극도로 제한된 정보만 통용되는 '모기장 네트워크'다."고 영국 BBC 방송 온라인판이 10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인터넷 활용 환경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방송은 '인터넷에 뛰어난 지구에서 가장 비밀스런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택된 엘리트 계층만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북한의 인터넷 서핑은 개방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기이하다"고 소개함.
- 이에 따르면 북한 인터넷의 기이한 특성으로 공식 웹사이트의 모든 웹 페이지에는 독특한 프로그램 코드가 숨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코드는 웹페이지 안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을 찾아내 활자를 굵게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양 주민들 성공 소식에 환호(종합)(12/12, 교도통신; APTN)**

- 북한 평양 주민들은 로켓 발사와 위성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는 공식 보도를 접하고 기쁨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과 APTN이 12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조선중앙TV가 정오를 지나 특별방송 형식으로 '은하 3호 로켓을 통한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성공했으며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하자 평양 시내 고려호텔의 식당과 카페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손뼉을 쳤으며 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평양발 기사에서 전함.
- 고려호텔 종업원 정은심(25·여) 씨는 "어떻게 기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기쁜 소식을 김정일 장군님이 들었다면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함.

● **北 중앙TV 간판 아나운서 교체(12/13, ABC)**

-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소식을 '특별방송'으로 전할 때 등장한 여성 아나운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미국 ABC 방송이 13일 전함.
- 미국 ABC 방송은 중앙TV에 등장해 북한이 로켓 발사 성공 소식을 특별방송으로 전한 여성 아나운서가 알려지지 않은 앵커라고 보도하면서, 이 여성 아나운서가 북한 TV 화면에 등장하는 몇 명의 새롭고 젊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했지만, 이외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中 훈춘-北 나선 버스 운행 확대 추진(12/11,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시와 훈춘(琿春)시, 북한 나선시를 연결하는 정기노선 버스의 승객이 꾸준히 늘어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1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해당 노선을 정식 개통해 매일 2차례 운행 중인 중국 연변동북아여객운수그룹 등은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37인승 버스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 횟수를 매일 4~5차례로 늘릴 계획임.
  - 이 노선은 연변동북아여객운수그룹과 지린위베얼(吉林宇別爾)운수그룹, 북한 나선시육해운수총회사와 나선시관광총회사 등 북·중 4개사가 공동 개설했으며 중국 측 업체들이 300만 위안(5억4천만 원)을 투자해 버스 11대를 구매함.
- **WFP, 내년 대북식량지원 예산 1억 달러(1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년 대북지원 예산으로 1억 달러를 계획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WFP 아시아지부의 '2013년 사업예산'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0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세계 굶주림 지수(Global Hunger Index)에서 심각한 수준인 19점으로 평가돼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에 속한다며 내년 사업비로 1억151만8천710달러(약 1천91억3천만 원)를 책정함.
  -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부족 상태, 5명 중 1명은 심각한 저체중 상태라며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함.
- **北, 15일부터 단둥-신의주 교역 중단(12/12,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7일)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북·중간 최대 교역 루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북한 신의주 간 수출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 1주기를 앞두고 산업 시찰이나 무역을 위해 중국에 나왔던 북한 무역상들이 이번 주부터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고 있으며, 북한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를 김 위원장 사망 1주기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 **北외무성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관여할 일 아니다"(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김정일 동지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며 부당하게 문제시해보려는 불순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그에 어긋나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적대시 관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결로써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또,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관 측들이 이성과 냉정을 견지해 사태가 본의 아니게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변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누가 뭐라고 하든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하면서 우주를 정복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안보리 "北로켓 결의 위반"..추가 제재 경고(종합)(12/1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평화차 박상권 사장 "北에 운영권 넘긴다"(12/14, 미국의소리(VOA))

- 통일그룹이 북한에서 가동해온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이 회사 운영권을 북한에 넘긴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박 사장은 지난 7일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화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그(북한)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며 자신은 보통강호텔과 평화자동차에서 명예이사장이나 명예사장으로 남아 기술 및 신용 등에 관한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中 허룽-北 삼지연 겨울철 관광코스 개통(12/15, 연변일보)

- 중국 지린성 허룽(和龍)시와 북한 량강도 삼지연군을 연결하는 겨울철 관광코스가 처음으로 개통됐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5일 보도함.
- 허룽시는 지린성에서 유일하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함경북도, 량강도 등 2개 도와 마주한 시로, 북·중 국경의 총 길이가 165.5km에 달하는데, 이 시는 1992년 정식으로 대북 관광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에도 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2일, 3일 코스를 열었음.
- 관광코스는 허룽 고성리 통상구를 거쳐 삼지연군에 도착한 뒤 삼지연대



기념비, 백두관, 백두산밀영옛집, 리명수폭포, 조선국가체육촌, 무산지 구승리기념탑 등 량강도와 함경북도 일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임.

- ITU "北 위성 신호송출 정보 못받아"(12/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이용해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ITU의 산자이 아차야 선임 공보관은 '광명성 3호'의 상태와 신호송출 등을 확인해달라는 RFA의 요청에 대해 "북한이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으로 '광명성 3호' 발사시기를 29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이후 아직 어떤 추가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나 위성에 대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北 금광 투자 中 기업, 첫 5성급 호텔 건설 지원(12/16, 호남일보(湖南日報))
  - 북한의 금광 개발 투자에 나선 중국 기업이 북한 내 첫 5성급 호텔 건설을 지원한다고 호남일보(湖南日報)이 1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長沙)에서 지난 14일 열린 제2회 후난성 국외광산자원투자상담회에서 후난웨이진(緯金)투자그룹은 북한과 합작으로 금광을 개발한다고 발표함.
  -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후난성 기업의 첫 대북 투자로, 여기에는 북한 최초의 5성급 호텔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12.12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UN·美 등 유관국들의 우려에 대해 "유관측들이 이성과 냉정을 견지하여 사태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번져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중통 문답(12.12, 중통·중방)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軍 "北 로켓 1단 추진체 잔해 인양 성공"(종합)(12/14, 연합뉴스)
  -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우리 해군에 의해 인양됐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해군 청해진함이 1단 추진체의 잔해를 오늘 0시 26분에 인양해 경기도 평택 2함대로 이송 중"이라며 "13일 오후 4시부



- 터 시작된 인양 작업이 8시간 반 가까이 만에 성공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해군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현재 길이 10m, 직경 1.6m에 달하는 1단 추진체 잔해를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새벽에는 평택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함.
  - 우리 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12일 오전 11시29분께 로켓의 1단 추진체 연료통으로 보이는 잔해를 군산 서방 160km 해상에서 발견, 고속단정(Rib)을 보내 해당 잔해를 줄로 연결해놓았으며, 이 잔해는 그날 오후 4시께부터 가라앉기 시작, 인양 당시에는 바다 밑 80m 지점에 낙하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北 "남측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은 선거용 술책"(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회는 14일 남한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최근 이산가족 모습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해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여당의) 재집권 기도를 위한 유치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상보'를 통해 "집권기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협력 사업을 파탄시킨 장본인인 괴뢰역적패당이 '영상편지'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남조선 이산가족에 대한 우롱"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또 이전 정부가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을 현 정부가 모두 뒤엎었고 '5·24조치'로 북남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다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가망이 없다"고 덧붙임.
- **北노동신문 "南서 민주정권 들어서면 손잡을 것"(12/16,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남조선에서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면 기꺼이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악몽의 5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남조선에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인민이 불행해지고 북남관계도 진통을 겪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함.
  - 또한, "이명박 패당과 새누리당이 집권 5년간 북남공동선언을 무참히 유린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말아먹은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라며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라산을 오가던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다시 끊어졌으며 금강산 관광 길이 막히고 개성공업지구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됐다"고 밝힘.
  -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북남관계를 몇십 년 후퇴시키고 통일 소원을 짓밟았으며 무분별한 대결책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전쟁 국면의 험악한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미사여구 공약을 늘어놓으면서도 '대북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민족경제협력위 백서(12.16)] '새누리당과 보수패당은 기만적인 경제공약으로 민심을 유혹하여 재집권 실현을 꾀하고 있다'며 '기만적 술책에 절대로 속지 말고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 (12.16,중통·중방/남조선경제와 민생파탄 실상을 밝힌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유엔 대북제재위 "北 로켓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12/11,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도발이자 위반 행위라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의장이 11일 경고함. 카브랄 의장은 이날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긴다면 "안보리가 신속하게 회의를 열고 어떤 형태로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사 시한을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함.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용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은 위성 발사를 위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음.
  - 카브랄 의장은 대북제재위원회의 15개 회원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약간의 진전이 이뤄져 왔다고 밝힘. 그는 "진전에는 시간과 인내심, 투자가 필요하다"며 "크고 막대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진전은 있다"고 말함.
  - 북한은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으로부터 여러 번 제재를 받음.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직후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제재 대상의 확대 방안을 논의함. 하지만 북한의 핵심 맹방인 중국의 반대로 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기업 세 곳을 더 추가하는데 그침.
- 北 "위성발사 성공...예정 궤도 진입" 발표(12/12, 연합뉴스)
  - 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1시23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오전 11시20분 처음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한 뒤 여러 차례 반복보도를 하고 있음. 북한이 로켓 발사를 발표한 것은 이날 오전 9시51분께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발사장에서 '은하 3호'를 발사한 지 1시간 30분 만임. 이는 지난 4월13일과 2009년 4월5일 장거리 로켓을 각각 쏜 뒤 4시간여 만에 발사 사실을 밝힌 것보다 훨씬 신속히 이뤄진 것임.
  - 북한은 또 지난 4월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된 뒤 8개월 만에 재발사해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은하 3호'는 지난 4월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 1단 로켓의 분리예



성공해 1단 추진체가 변신반도 서쪽에 낙하했고 2단 추진체 추정물체도 필리핀 근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그동안 대내용 매체에서는 로켓 발사에 관한 내용을 일절 전하지 않았으나 이날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처음으로 알림.

-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달 10~2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고 지난 10일 "운반 로켓의 1계단 조종 발동기 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발사기간을 오는 29일로 1주일 연장한 바 있음.

### ● 美전문가 "北 3차핵실험 준비정황 포착"(12/12, 연합뉴스)

-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지난달 한달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로켓발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3차 지하)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함. 한센 연구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CISAC가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마련한 스탠퍼드대학 내 대북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로켓발사 후 3차 지하 핵실험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
- CISAC는 한센 연구원과 함께 이 대학의 아·태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토머스 핑거 FSI 연구소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위성사진 이미지 분석 전문가인 한센 연구원은 이 인터뷰에서 "11월19일 위성사진에는 수해로 인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이어지는 3개 다리가 유실되는 바람에 비포장도로 일부가 이용할 수 없게 됐으나 새로 마련한 남쪽 터널로 이어지는 옛도로를 보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함. 그는 "같은 달 24일 사진에서도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로 마련된 도로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빈번한 차량 이동 흔적이 보였다"고 설명함. 한센 연구원은 "특히 남쪽 터널 입구에 쌓여 있던 눈을 치운 것으로 보이는데다 터널내 흙더미를 외부로 내리기 위해 이용되는 철로를 폐자재 위에 재설치한 것처럼 추측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임.

### ● <北로켓발사> EU, 대북 추가제재 경고(12/12,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함.
-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EU는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능한 추가 제한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는 오랜 시도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함.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조건 없이 즉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도 강조함.



● **中정부 "안보리 대응 신중·적절해야"(12/14,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움직임에 부정적 견해를 재차 표명함.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4일 "안보리의 관련 반응은 신중·적절한 것으로 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힘.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추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한반도) 정세를 번갈아 격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함. 다만 홍 대변인은 "조선(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재확인함.
- 중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에는 유감을 밝히면서도 추가 제재 움직임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 중국은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떨어지는 반면 북한을 자극해 추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도 함. 한편 홍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로켓 발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는 "이미 여기서 우리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음.

나. 미·북 관계

● **"한국계 미국인, 北에 장기 억류 중"(12/12, 연합뉴스)**

- 한국계 미국인 관광업체 대표가 한 달 이상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짐.
- 이날 탈북자 단체 등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케네스 배 씨가 지난달 초 여행객들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음. 북한 당국은 여행객 가운데 한 명의 소지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솔자인 배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으나, 다른 여행객들은 모두 귀국시킨 것으로 전해짐.
- 도희운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배씨의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배씨 일행이 북한을 나오던 중에 배씨만 억류돼 평양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함. 그러나 국무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관련 문의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식 발표할 게 있으면 알려주겠다"고만 답함.
-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정보는 없는 상태"라면서 "억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배씨가 미국 시민권자인데다 신변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북미항공우주사령부 "北위성 궤도진입 성공한 듯"(12/12, 연합뉴스)
  -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미국의 미사일 감시 시스템의 추적 결과 북한은 성공적으로 물체(위성)를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NORAD는 "초기에 파악된 정황으로 미뤄볼 때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확인함. 발사 사실은 미 동부 시간으로 11일 오후 7시49분(한국시간 12일 오전 9시49분)께 관측됐으며 분리된 1단 추진체가 서해로 떨어진 데 이어 2단 추진체는 필리핀 근해로 낙하했다고 NORAD는 전함. NORAD는 "미사일 또는 발사체 낙하물(debris)로 미 본토가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임.
  
- 美상원 외교위원장 "北로켓발사로 고립 심화"(12/1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고립 심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케리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영화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를 언급한 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적이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함.
  -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이 영화는 매일 같은 일을 겪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 그라운드호그 데이는 우리의 '경칩과 비슷한 기념일로, 봄을 알리는 동물인 북미산 마멋(그라운드호그)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임.
  - 차기 국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리 위원장은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이미 고립된 북한을 더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이른바 '인공위성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또다시 유엔과 6자회담 참가국, 전세계에 반항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함. 또 미국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된 공화당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래도록 실패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함.

#### 다. 중·북 관계

- 中, 北 로켓 발사 철회 설득 나서(12/11, 연합뉴스)
  - 중국이 베이징(北京)과 평양의 대사관 채널을 활용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철회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11일 "북중 간에 양국 파견 대사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중국 당국은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의 국제부와 내각의 외무성 고위 채널을 접촉토록 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베이징 주재 지재룡 북한 대사를 활용해 북한 고위층에 중국 입장



- 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함. 소식통은 "중국 내부에선 어떻게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판단돼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임.
  - 한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전화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등 미중 공조 '설득 외교'도 펴고 있음.
- **"北, 15일부터 단둥-신의주 교역 중단" (12/12,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7일)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북·중 간 최대 교역 루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북한 신의주 간 수출입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짐.
  - 12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 1주기를 앞두고 산업 시찰이나 무역을 위해 중국에 나왔던 북한 무역상들이 이번 주부터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고 있음. 북한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를 김 위원장 사망 1주기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이달 들어 외국인의 방북 통제와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짐.
  - 특히 북·중 간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신의주 간 수출입 업무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중단될 것으로 알려짐.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지난해 김 위원장 사망 후 며칠간 수출입 업무가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김 위원장 1주기를 전후해 일정 기간 교역이 중단될 것"이란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최근 귀국길에 오르는 북한 무역상들의 물품 구매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함. 이날 단둥 해관(세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압록강철교를 건너 북한으로 반입할 물품을 실은 수십 대의 트럭이 수속을 밟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을 빚기도 함.
  -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 내 외국인들에게 출국 지시를 내렸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역 일시 중단은 내부 동요를 초래할 외부의 불순한 소식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함.
- **中신화통신 "북한, 자기방식만 고집" 비판(12/12, 연합뉴스)**
- 중국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신화통신이 12일 "누가 뭐래도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나라"라는 노골적 표현을 동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비판함.
  - 신화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산하 기관인 세계문제연구소 가오하오룽(高浩榮) 연구원이 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증시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함. 칼럼은 먼저 "일련의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누가 뭐래도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북한이 12일 광명성 3호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꼬집었음. 칼럼은 '상식'에 비춰보면 위성 탑재 발사체나 핵무기가



지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완성을 우려해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함.

- 칼럼은 그러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의 결과 마련된 것임을 상기시켰음. 칼럼은 이어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을 가졌더라도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는 견해를 피력함. 칼럼은 "모든 나라가 당면한 정세와 주변의 우려를 무시한 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함. 칼럼은 북한이 평화적 우주 개발을 원한다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함.
- 신화통신은 그러나 북한을 강력히 성토했면서도 추가 제재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침. 칼럼은 "과거의 사실이 보여주듯 안보리 결의나 성명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관련국의 과격한 행동은 정세를 번갈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금은 반도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하루빨리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함.

#### 라. 일·북 관계

##### ● 日 이시하라 "평화헌법 때문에 200명 이상 납북"(12/11, 연합뉴스)

- 일본의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일본유신회 대표가 평화헌법(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인 200명 이상이 북한에 납치, 살해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음.
- 1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시하라 대표는 10일 도쿄 시내 거리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상황증거로 얘기하자면 2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말함. 그는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때문에 동포가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면서 "헌법 9조가 없었다면 일본 정부는 '피랍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든지, 공격하겠다'는 자세로 (납북자를) 되찾았을 것이다"고 주장함. 이시하라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납북자 수 등이 크게 부풀려진데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2002년 돌려보낸 5명을 제외하고 12명의 피랍자가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납북자 귀국을 위해 북한과 협의하고 있음. 이시하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해 공조 가능성을 시사함.
- 이시하라는 일본을 주권 국가로 바꾸기 위해 평화헌법(헌법 제9조)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日 시마네현 부근 해상서 北 조난 선박 발견(12/12, 연합뉴스)**
  - 11일 오후 1시40분께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섬 북동쪽 약 140km 해상(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발견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현장에 도착한 해상보안청 직원의 질문에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은 "북한 배다. 고장났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짐. 갑판에는 3명이 타고 있었음. 이 배는 길이 20m, 폭 5m 크기의 목조 선박으로 조타실을 갖추고 있음. 선체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음.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선원 중 남성 한 명이 손을 흔들며 구조해달라는 뜻을 표시함.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8시께 경비함을 현장에 보냈지만, 비바람이 거센 탓에 조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동해에 접한 일본 니가타(新潟)·이시카와(石川)·시마네현에선 북한 선박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음. 지난해 9월에는 탈북 남녀 9명이 목조 선박을 타고 이시카와현에 도착한 뒤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 향함. 올 1월에는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생존자 3명과 사망자 1명이 승선한 북한 어선이 발견됐고, 지난달 말에는 시신 5구가 실린 북한 어선이 니가타현 사도(佐渡)섬 해안에 밀려옴. 지난 1일과 2일에도 사도섬에서 북한 선박이 잇달아 발견됐음.

- **〈北로켓발사〉 日 정부 "北에 엄중 항의"(12/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힘.
  -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49분 미사일(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는 한국측이 추정하는 시각(오전 9시 51분)보다 2분가량 빠름.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또 북한 로켓이 오전 10시1분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했지만 일본 영해에 떨어진 낙하물이 없는 만큼 자위대의 파괴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그는 또 첫 번째 낙하물은 오전 9시58분 한반도 서쪽, 두 번째 낙하물은 오전 9시59분 한반도 남서쪽 동중국해, 세 번째 낙하물은 오전 10시5분 필리핀 동쪽 태평양에 각각 떨어졌다고 발표함.

#### 마. 러·북 관계

- **"러, 유엔안보리 對北 추가 결의 논의 지지"(12/14, 연합뉴스)**
  -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밝힘.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한 행보라고 간주한다"면서 이같이 답함. 루카세비치 대



변인은 "안보리의 대응 방식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 형태의 대응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데 완전히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며 "대응 방안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은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높이고 국제안보와 대화 과정 재개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밝힌 것은 이례적임.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대한 위반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러시아가 내용에 따라 추가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지금까지 대다수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대북 제재 방안 논의에선 중국과 함께 추가 결의안 채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해 왔음.
-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호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견해를 무시하고 북한이 강행한 새로운 로켓 발사는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한 바 있음.

## 바. 기 타

### ● <北최룡해, 대장으로 계급 강등...배경 해석 부분>(12/1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시대의 군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16일 차수에서 대장으로 한 계급 강등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가 궁금증을 낳고 있음.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군을 대표하는 연설자로 최룡해를 소개하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군 총정치국장인 인민군 대장"이라고 언급함.
- 지난 4월7일 차수에 임명되고 나흘 뒤 군 총정치국장이 된 최룡해의 계급이 8개월 만에 대장이 된 것임. 앞서 최룡해는 지난 2010년 9월 당시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았음.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이틀 전인 이달 14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위성 발사 성공 평양시 군민경축대회까지만 해도 차수 계급장을 달고 나왔음.
- 이런 갑작스런 계급 강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도 분분함. 우선 최룡해가 다른 군지휘관들과 계급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강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임.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함께 북한 군부의 핵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영철 총참모장과 김격식 인민무력부장이 대장이기 때문에 계급을 맞췄을 수 있다"고 평가함.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 군인 출신이 아닌 최룡해가 현영철이나 김격식보다 높은 계급장을 단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 군부 주요 3인방의 계급을 대장으로 평준화했을 가능



- 성이 있다"고 분석함.
- 일각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경미한 잘못을 저질러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계급을 낮췄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총정치국장은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군의 사상 또는 조직 이완에 문제가 생겨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고성 문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함.
  -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난 4월 이후 '당→정→군' 순으로 주요 인물에 대해 검증(검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룡해의 계급 강등은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이뤄지는 권력개편과 군의 조직·인사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힘.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美, 北로켓 '해체후 동향' 한국엔 알려주지 않아"(12/13, 연합뉴스)
  - 북한이 로켓을 일단 발사대에서 내렸다가 다시 설치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파악하고도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함.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한 때 로켓을 발사대에서 제거한 것은 사실임.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도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함. 그런데도 북한이 12일 오전 발사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결함이 발견된 로켓을 제거한 뒤 곧바로 예비 로켓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음.
  -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같은 사실을 위성을 통해 파악하고도 한국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함.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분별없이 (언론 등에) 정보를 유출하는데 불만을 품고 제재를 한 셈"이라고 말함. 반면 미국은 일본에는 북한의 동향을 상세하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짐.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는 (발사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경계수위를 낮추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시사함. 실제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0, 11일과 마찬가지로 12일에도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출근해 오전 8시에 관계각료회의를 여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음. 미사일 탐지·요격을 담당하는 자위대 간부는 "12일에 발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나. 한·중 관계

- 이규형 대사, 中 우다웨이와 北 로켓 발사 논의(12/13, 연합뉴스)
  - 이규형 주중 대사가 12일 밤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



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했음.

- 1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우 특별대표와 회동해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음. 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음. 대사관 측은 "그동안 한중 양국 간에 각급 채널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응방안도 상호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힘. 대사관 측은 그러나 이 대사와 우 대표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음.

#### ● 정부, '대북제재' 中 설득에 주력(12/16, 연합뉴스)

-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핵심 관건이 될 중국을 설득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음.
-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업무 준비차 17일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중국에 파견함.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움직임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양제츠(楊潔지<兼대신 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음. 또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장신썬(張愐<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만나는 등 한중 외교채널이 모두 가동되고 있음.
- 정부가 중국 설득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음. 중국이 추가 대북결의안 통과에 핵심 관건이 되는 동시에 대북제재 시행시 중국의 협조가 실효성을 내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임.

#### 다. 한·일 관계

#### ● "한국 대륙붕 경계안, 2009년보다 일본 쪽으로 확대"(12/16, 연합뉴스)

- 정부가 조만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우리 측 대륙붕 경계안은 2009년 5월 예비정보 제출 때보다 남동쪽으로 더 확대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짐.
-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6일 "정부가 CLCS에 제출할 내용은 2009년 5월에 제출했던 예비정보 문서에 들어 있던 경계보다는 조금 더 일본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함. 2009년 당시 정부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우리 측 대륙붕으로 규정한 바 있음. 이 면적은 총 1만9천km<sup>2</sup>에 달함. 이번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안은 2009년 제출했을 때보다 오키나와 해구 쪽으로 더 근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정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가 주장



할 수 있는 대륙붕 한계가 이보다 더 뻗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정부가 제출할 대륙붕 경계안은 중국이 최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와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한·중간 경계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은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한계를 넘어 설정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음. 중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임. 2009년 5월 예비정보를 동시에 제출한 한·중 양국은 그동안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해 긴밀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이 제출한 만큼 우리 정부의 정식문서 제출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문서 제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임.
-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CLCS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를 원하는 회의 3개월 전에 문서를 제출하게 돼 있음.

#### 라. 미·중 관계

##### ● 中 시진핑, 美 카터에 "양국 '윈-윈' 협력해야"(12/14,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중 양국이 서로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윈-윈(Win-win)' 하는 협력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함.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총서기는 전날 베이징 시내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카터 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 시 총서기는 "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도 함. 카터 전 대통령은 면담에서 미중 관계 소통을 진작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함.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는 리커창(李克強) 중국 상무부총리와 면담함.

##### ● 후진타오, 오바마에 충격사건 위로 전문(12/16, 연합뉴스)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코네티컷주(州) 뉴타운 초등학교 충격 사건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냈음.
-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전날 보낸 전문에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보내고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시함.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 부장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음.
- 신화통신은 미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오전 애덤 랜자(20)라는 범인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개함.

● **美, 다오위다오 영토분쟁 고조에 우려 표명(12/16, 연합뉴스)**

- 미국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함.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오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벤트렐 부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최근 중국 해양감시국 항공기가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다오위다오 영공에 진입한 직후 나온 것임. 벤트렐 부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정부에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센카쿠열도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과 약속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지금까지 변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함.
- 미국은 이번 영토분쟁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일 안보조약에 다오위다오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벤트렐 부대변인의 발언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결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함. 스 교수는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결이나 군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분석함.

마. 미·러 계

● **푸틴도 美 총기난사 사건 관련 오바마에 조전(12/15, 연합뉴스)**

- 미국 코네티컷주(州)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최악의 총격 사건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시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냄.
- 푸틴 대통령은 조전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대해 특별한 슬픔을 표시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밝혔음. 푸틴은 오바마에게 희생자 유족과 친지들에게 지지와 공감의 뜻을 전해달라며 모든 미국 국민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데이미드 캐머런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등도 애도의 뜻을 밝힘. 앞서 1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족과 불화를 겪던 20세 남성이 모친이 일하는 학교를 찾아와 총기를 난사, 어린이 20명을 포함 최소 28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음.

● **〈美, 對러시아 인권법 제정.. 양국 갈등 격화〉(12/1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對)러시아 인권 법안인 '마그니츠키 법안'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러시아 하원이 대응 법안 심의를 밀어붙이고 있어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격화하고 있음.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4일(현지시간) 제1차 독회(심의)에서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안에 맞서는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음. 독회에 참석한 433명의 의원(전체 의원 450명) 가운데 431명이 찬성하고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음. 법안이 하원에서 채택하려면 세차례 독회를 거쳐야 함.
- 해당 법안은 러시아인의 인권을 침해한 미국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음. 앞서 하원 의장 세르게이 나리슈킨과 원내 4개 정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러시아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에 간여한 자, 러시아 국민 납치나 감금 등에 간여한 자, 러시아 국민에 대해 근거 없고 불공정한 선고를 내린 자, 러시아 국민에 대해 근거 없는 수사를 진행한 자 등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은 또 '페르소나 논 그라타(비우호적 인사)'로 분류된 미국 인사들의 러시아 내 금융 계좌 및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대러 인권 법안인 마그니츠키 법안에 최종 서명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대러 무역 제한법인 '잭슨-베닉 수정안'을 폐지하는 대신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안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함. 마그니츠키 법안은 마그니츠키 피살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사건 당사자 외에 인권침해에 가담한 다른 러시아 인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 영국 투자펀드 허미티지캐피털의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일한 러시아인 변호사 마그니츠키는 2008년부터 자국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을 파헤치다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11월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숨졌음. 구치소 측은 애초 마그니츠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족과 인권단체의 끈질긴 반발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마그니츠키가 수감중이던 구치소에서 고무곤봉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지난해 공식 발표함.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안 채택은 정치적으로 비우호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양국이 인권 법안을 두고 서로 대치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문제로 심화해 온 양국 간 갈등이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바. 중·일 관계

- **日 "센카쿠 해역에 대형 경비함 증강 배치"(12/13,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양측의 경비함·감시선 대형화 경쟁에도 불이 붙었음. 기타무라 다카시(北村隆志)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13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급 이상 경비함을 늘려 센카쿠 열도 주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는 자위함을 전용하는 방안과 1~2년 내 새 함정으로 교체될 해상보안청 경비함의 수명을 늘려 사용하는 방안 중에서 후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기타무라 장관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퇴역할 예정인 1천급 이상 경비함 10척을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는 경비함을 운용할 인원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함.
-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재 경비함과 경비정 357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51척은 1천급 이상 대형 경비함이다. 중국의 1천급 이상 함정은 40여 척에 불과함.
- 기타무라 장관은 일본이 대형 경비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은 최근 5천860t급 어업감시선을 취역했을 뿐만 아니라 군함을 전용해 대형 감시선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경비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 中, 센카쿠 공중순찰 日항의 일축(12/14, 연합뉴스)

-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상공에 자국 항공기를 진입시킨데 대한 일본측 항의를 일축함. 14일 주일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가와이 지카오(河相周夫) 사무차관은 전날 한즈창(韓志强) 대리대사를 불러 중국 항공기와 해감선(해양감시선)의 센카쿠 영공·영해 침범에 항의함.
- 그러나 한 대리대사는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관련 해역과 공역은 중국의 영해와 영공에 해당한다"며 "중국 해감선과 해양감시 항공기가 이곳에서 순찰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일본은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함. 한 대리대사는 나아가 일본 선박과 항공기가 중국 영해와 영공에서 나가라고 요구함.
- 중국 해감총대는 13일 오전 해양감시 항공기인 B-3837기를 센카쿠 상공에 들여보내고 해상에서는 해감50호, 해감45호, 해감 66호, 해감137호 등 4척으로 구성된 해감선 편대를 센카쿠 영해에 진입시키는 '입체 순찰'을 함. 일본은 F-15J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것으로 대응함. 중국이 센카쿠 영공에 항공기를 들여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 中 최대 어정선, 센카쿠 12해리 내 진입(12/16, 연합뉴스)

- 중국 최대규모의 어정선(漁政船·어업관리선)인 '어정 206호'가 16일 중일 분쟁 해역인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12해리 안쪽으로 진입했다고 환구망이 보도함.
-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인터넷사이트인 환구망은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어정 206호가 중국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 내 접속수역에 들어갔다고 전함. 어정 206호는 50분간 해당 해역에 머물렀음.

- 어정 206호는 일본 순시선이 무선으로 영해 침범이라고 항의하자 "다오 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맞섰다. 5천872t급인 어정 206호는 중국 농업부 산하 중국어정 동해(東海)총대에 지난 11일부터 배속돼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환구망은 "어정 206호가 지난 9월 이후 중국 정부 선박으로선 18번째로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일본 측이 밝혔다"고 전함.
- 중국은 일본이 지난 9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센카쿠 부근에 해양감시선과 어정선을 지속적으로 진입시키고 있으며 난징대학살 75주년 기념일인 지난 13일엔 자국 항공기를 센카쿠 열도 상공에 첫 진입 시키는 등 일본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패트릭 벤트렐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4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저해해선 안 된다"며 중일 간 센카쿠 영토 분쟁에 우려를 표시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